

## 12/27(월) 에스라 묵상 3

### 에스라 2:1-70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그리고 출신 지방별로 분류한 말씀입니다. 2장의 내용을 구분하자면 첫째로, 3-20절은 가계별 자손입니다. 둘째로, 21-35절은 출신 지방별 자손입니다. 셋째로, 36-42절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넷째로, 43-58절은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왕의 신복들의 자손입니다. 다섯째로, 59-60절은 그 외 출처가 불명확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의 이름처럼 소위 '남은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 곧 황무지와 같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할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입니다(사 6: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자들 중에 대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2절,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왜와 르훔과 바아나.."). 이 명단은 느헤미야 7:7절에 기록된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느 7:6-7,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농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먀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왜와 느훔과 바아나.."). 위의 두 명단을 비교해보면, 이들 중에 느헤미야는 제 3차 포로귀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이고, 다섯 명의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동일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12지파의 대표드 즉 족장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과 그 자손들이 1차 포로 귀환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열 두 지파와 모든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스 6:16,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되어 다시 재건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엡 4:3-4,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 하나님의 예배자들

제 1차 포로귀환자들의 명단을 보면 특징적인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숫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36-39절). 그 중에서 36-39절에 있는 '여다야, 임멜, 하림'의 이름은 각 제사장 반열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대상 24:7-18). 이들과 함께 1차로 귀환한 숫자가 4,300명이나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주로 제사장을 보좌하거나 찬양을 하고, 성전 문지기를 하며, 또 유사와 재판관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1차 포로 귀환에 레위인들의 숫자도 341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서 1차 포로 귀환자 5만명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이처럼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묵상해봅니다. 첫째로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남은 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에도 묵상한 대로 바벨론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헌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일입니다. 둘째로, 포로 귀환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손 대대로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유명인들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의 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도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고 70년 후에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갖 죄와 어지러움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전세계 기아:** 유엔세계식량계획의 2021년 11월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아가 급증하면서 43개국에서 기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2021년 한 해에만 300만 명이 증가하여 4,50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증가 현상은 에티오피아, 아이티, 소말리아, 앙골라, 케냐, 부룬디, 예멘, 시리아 등과 같은 국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WFP는 전 세계적인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7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 버린 기아의 문제를 국제기구와 선진국 및 인도주의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부서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은 영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인도네시아 이기쁨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